

# 전기요금 7월부터 내린다

## 10일부터 휘발유 등 유류세 10% 인하 고속도로통행요금도 내달 20일부터 내리

오는 7월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료가 내리고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 등 수송용 유류의 세금은 오는 10일부터 10% 가량 인하된다.

다음달 20일경부터 출퇴근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 최대 50% 가량 내리고, 밀가루·부침가루·식용유 등 올해 들어 가격이 급등한 83개 품목에 대해 지자체와 국제청·소비자단체가 합동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최종 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Action Plan)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2010년까지 산업계 지원과 일반 전기사용 억제에 대해 짜여진 전기요금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는 장기계획의 연장선상에서 7월부터 주택용, 일반용 요금을 인하할 방침이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06년 옹도별 전기요금 원가보상률은 주택용과 일반용이 각각 113%, 123%, 산업용은 97.6% 수준이다. 이후 두 차례의 요금조정에서 산업용의 원가보상률은 높아지고 주택용과 일반용은 하향 조정된 바 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유류세 10% 인하 방안은 오는 10일 정유사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나 소매가에 실제 반영되는 지 살피기 위해 4개 정유사와 1만2천개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대한 전 조사를 실시하고 4월부터는 일반소비자들에 주유소별 판매가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다음달 20일경부터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출퇴근시간(오전 5~7시, 오후 8~10시)에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을 최대 50% 가량 인하해주고, 추후 민자고속도로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현재 하이패스나 출퇴근 예매권 구입시 20% 할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내리면 올해 3천여만대의 차량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과 차량 총 2억1천만대 가운데 출퇴근 할인을 받은 차량은 6천322만5천대, 금액은 139억원이었으며 여기에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제가 시행되면 9천만대가 할인 혜택을 보게돼 306억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올해 들어 2% 이상 값이 오른 83개 품목에 대해 지자체·국제청·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 합동점검반이 구성돼 상반기 중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서며, 고철·철근 등은 15일까지 매점매석 품목으로 고시해 적발시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전기료, 철도요금, 고속버스요금, 우편료 등 중앙공공요금 17종을 동결하고, 쓰레기봉투, 하수도로, 지하철요금, 시내버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11종에 대해서도 인상 억제를 관련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국 33개 지방 도시가스 사업자의 부당한 공급약관이 이달 중 시정되며, 의약품 싼거리가 상환제를 개선해 의약품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합뉴스

# 대출 깬 집도 주택연금 받을 수 있다

## 주택금융공, 연금 활성화 방안 시행 '수시 인출금' 용도 제한 없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집의 일부를 임대했다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일 이러한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종신혼합형 주택연금을 선택한 고객이 대출 한도의 30% 범위(최대 9천만원)에서 찾아 쓸 수 있는 '수시 인출금'의 용도 제한을 사실상 없앴다.

지금까지는 보건의료비나 관혼상제비, 교육비 등에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었으나 도박이나 투기 등 사행성 지출이나 신용대출 상환 등을 제외하면 주택임차차금 상환 등 목적이 필요할 때 수시로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끼어 있는 주택 소유자들도 수시 인출금을 이용해 빚

을 갚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가입자들도 용도확대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수시인출금을 사용한 가입자는 해당 금액을 빼고 상환할 연금을 받게 돼 월 지급금은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65세 이상 노인인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수시인출금 한도(3천843만원)까지 찾아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경우 월 지급금은 60만5천원으로 일반 종신형 가입자(86만4천원)보다 26만원 가량 적다.

공사는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월 지급금을 매년 일정비율을 늘리는 상품을 추가해 5월말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이 상품은 평생 똑같은 월 지급금을 받는 현행 상품과 달리 가입 초기에는 적게 받다가 매년 3%씩 금액을 늘려받도록 돼 있다.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연금형식으로 월 일정액을 받는 대출 상품으로, 지난해 7월 처음 선보인 이후 4일 현재 579명이 가입했다. /연합뉴스

# “공기업 민영화, 주인이 누구냐 보다 조직의 효율성 높이는 것이 더 중요”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주인을 찾아주는 것보다 당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공기업을 민영화 하자는 것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매각하느냐 보다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상수지를 강조하다 보면 물가에 소홀할 수 있고, 물가를 잡다보면 경상수지에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지만 현 상황이 어느 한쪽만 신경을 쓸 수 없는 만큼 양쪽 모두 최선의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공기업에 대해 소유는 정

부가 하되 경영만 민간에 위탁하는 싱가포르의 테마파크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모를 통해 민간에서 최고 경영자를 선임해 상업적 베이스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 “성장률, 경상수지, 주가 등 경제 전반의 트렌드가 아주 안좋다”고 진단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가 현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않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상수지를 강조하다 보면 물가에 소홀할 수 있고, 물가를 잡다보면 경상수지에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지만 현 상황이 어느 한쪽만 신경을 쓸 수 없는 만큼 양쪽 모두 최선의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판촉용 시계’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개막된 제18회 서울국제 판촉물 및 생활용품전에서 한 시계 업체 직원이 판촉용으로 제작된 시계 앞에서 바이어들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눈치보기 증시 불확실성 확대

## 美 투자은행 실적따라 '롤러코스트'

증시가 해의 변수에 시달리면서 상승 모멘텀을 좀처럼 찾지 못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기침체와 신용경색 우려, 중국의 긴축정책 채택, 일본의 엔고에 의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등 미, 중, 일 세 나라의 불투명한 변수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증시 상승을 가로막는 형국이다.

미국에서는 2월 한달 내내 하루가 멀다하고 악재가 쏟아져 나왔지만 3월에도 사정은 그리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번달 미국의 변수는 크게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하 ▲소비, 고용, 물가 등 경제지표 ▲투자은행 실적 발표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단 18일 예정된 FRB의 기준금리 인하는 더 이상 호재가 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1월의 금리인하는 워낙 전격적으로 이뤄진데다 인하 폭도 커 시장의 불안감을 재우는데 일조했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금리인하에 대한 반대 목소리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시장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투자은행의 실적 부분이다. 리먼브러더스(10일), 골드만삭스(18일), 모건스탠리(20일) 등 대형 투자은행의 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 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표되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 아시아나항공 유럽 마케팅

## 파리 취향 앞두고 경품 추첨 이벤트

아시아나항공(대표 강주안)이 오는 31일로 예정된 파리 취향을 앞두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선다.

아시아나는 아시아나클럽 회원과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특가항공권 판매, 경품추첨 이벤트, 할인 마일리지 항공권 제공 등 역사적인 파리취향을 기념하는 각종 마케팅 활동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부터 4월30일까지 아시아나 홈페이지(www.flyasia.com)를 통해 4월1~30일 출발하는 파리를 비롯한 런던·프랑크푸르트 노선 등 유럽 항공권 구매시 일반 판매가격에서 4~15% 할인된 항공권을 판매한다.

이와함께 인터넷으로 유럽 항공권을 구매할 탑승객 중 추첨을 통해 유럽 왕복항공권을 제공하고 파리항공권 구매

고객 전원에게 유럽 호텔 7% 할인예약 혜택과 아시아나 모험비행기를 선물하며, 파리 에어텔(항공권+호텔) 상품을 구입한 고객들에게는 ‘유럽 여행 가이드북’을 주는 등 풍성한 경품을 제공한다.

아시아나의 인천~파리 노선에 있는 보잉 777기종이 주 3회(월, 수, 금) 운항하며, 인천~파리 구간 운항편은 오후 1시 15분에 인천공항을 출발해 당일 오후 6시 20분(파리 현지시간)에 파리 샤를 드 골 공항에 도착한다. 파리~인천 구간 운항편은 오후 9시 20분(파리 현지시간)에 파리를 출발해 익일 오후 3시 2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예약은 전화(1588-8000) 및 홈페이지(www.flyasia.com)를 통해 가능하며, 상기 이벤트 당첨자 확인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종대기자 jtle@kwangju.co.kr

# 대기업 공채 뚫어라

## 삼성·현대중공업 등 이달부터 채용 시작

주요 대기업들이 이달 들어 상반기 공채채용에 나서고 있다.

5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11일까지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3급 신입사원 채용에 나서는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테크윈, 삼성코닝정밀유리, 삼성SDS, 삼성네트웍스, 종합기술원,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중공업, 삼성토탈,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물산 상사부문을 들 수 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현대중공업그룹이 14일까지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CJ그룹은 6일부터 대졸 신입사원 및 인턴사원 채용을 시작한다. 채용 규모는 250명 이상, 대졸 신입사원

은 4년제 대학(원) 졸업(예정)자, 인턴사원은 내년 2월에 졸업하는 4년제 대학(원)생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포스코그룹은 10일부터 21일까지 포스코, 포스틸, 포스코건설 등의 기업에서 일할 대졸 신입사원을, STX 그룹도 17일부터 28일까지 ㈜STX, STX팬오션, STX조선 등 8개 계열사에서 일할 750여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각각 뽑는다. LG넥스원은 연구개발, 품질·생산기술, 일반관리 부문에서 신입 및 경력사원을 구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제지, 하나대투증권,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해태제과, 한미약품, 한국조폐공사 등도 이달 중 상반기 공채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 삼성전자 등기 임원 평균 연봉 133억

대한민국 최고 연봉자들인 삼성전자 등기 임원(사내이사)의 작년 평균 보수가 1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전체 등기 이사들의 보수한도로 1천100억원을 승인받은 삼성전자는 실제로 802억원을 지출했다.

삼성전자의 전체 등기이사수는 13명으로 사외이사 7명에게 지급된 보수 4억 2천994만원을 제외하고 사내이사 6명에게 돌아간 금액은 797억7천6만원이다.

이건희 회장, 윤종용 부회장, 이화수 그룹 전략기획실 부회장, 이윤우 대외협력담당 부회장, 최도석 사장, 김인주 사장 등 삼성전자 등기 임원은 1인당 평균 132억9천501만원을 받아낸 셈이다.

지난 해인 2006년 삼성전자는 600억원의 보수한도 중 6명의 사내이사에게 255억9천944만원을 지급, 1인당 평균지급액이 62억5천604만원에 그쳤다. /연합뉴스

# 두바이 유가 '나홀로 상승'

## 배럴당 95달러 돌파 ... WTI는 하루 만에 하락

미국의 석유재고 증가 전망 등으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내렸으나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시차 탓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배럴당 95달러선을 돌파했다.

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4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은 전날보다 배럴당 0.74달러 오른 95.61달러선에 가격이 형성됐다.

두바이유의 강세는 전날 미국 달러화 약세로 투기자들이 석유시장에 유입되

면서 발생했던 국제유가 전반의 초강세가 거래시간 차이로 뒤늦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두바이유의 가격 흐름과 달리,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의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하루 만에 배럴당 2.93달러 내린 99.52달러, 런던 석유거래소(ICE)의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은 2.96달러 떨어진 배럴당 97.52달러에 각각 마감하며 나란히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복귀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부루네오가구	판매 및 매장관리 직원 채용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7	062-374-8847
☎나연인터내셔널	무동파크호텔 제과부(제빵정) 모집	고졸/경력5년	회사내규	03/07	062-231-1571
신성하이텍	(생산·품질·총괄관리/생산직/경리)분야별 사원채용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8	062-952-1441
광주인스튜디오	포토샵디자이너 및 베이비시어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8	062-374-6400
상상커뮤니티	사무보조 및 이벤트 기획 연출 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9	062-373-3844
☎광주광역시청	(사번관리/웹디자이너/웹 프로그래머)정규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9	062-224-8564
에스씨엔	삼성생명 호남지역 전신관리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3/10	02-591-5591
윤선생영학교(광주부곡점)	[영어교육명문학교]상담/관리 선생님 채용공고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3/11	062-526-0566
☎엔지테크	[광주/서울/부산] 프로그램 개발자 채용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1	062-675-8750
한국인삼공사	[계약직](주)한국인삼공사 판매직 사원모집 (광주금호동)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3/11	02-2189-6542
정우개발	건축공무 경력직 남직원채용(본사근무)	초대졸/경력5년	2400~2600	03/12	062-513-6700
공명산업	일반관리(총무) 여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2	062-945-8783
모던디자인	인테리어설계업무 및 사무실업무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2	062-236-0245
피브로한의원	치료실 실장 - 통증치료 보조, 사무장급	고졸/경력2년	1200~1400	03/12	062-971-1117

(☎광주잡코리아 612-6210 제공)

# KDI “정부 시장 개입 줄여야”

## 자생적 발달 저해 ... 성장 둔화 우려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개입은 시장의 자생적 발달을 저해해 자원배분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개입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정부의 경제적 역할 : 세계적 추세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정부역할의 전반적 추세는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민영화, 민간위탁, 바우처 등 시장형 기제를 확대하고 상품·금융시장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며 통화, 환율, 재정 등 거시경제의 재정적 운용을 제한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경제규모가 확대됐고, 시장 특히 금융시장의 심화에 따라 자원배분에 관한 직접적인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